

바둑

# 반상의 고수들 “바둑도 체력싸움”

### 프로기사들 건강관리법

## 달리고 오르고 명상... 흡연·두주불사는 이젠 옛 말 신세대들 중심 야구팀 '기' 창단, 연예인리그 참여

‘국보’ 이창호 9단이 최근 과도한 두뇌 혹사와 스트레스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로기사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뇌 스포츠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둑은 특성상 대국자들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종목이기에 프로기사들의 지나친 두뇌 혹사와 운동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그렇다면 시간과 몸이 재산인 프로기사들은 평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을까? 만성 운동부족에 시달리며 쉬운 프로 기사들은 대체로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편이다.

재미있는 점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운동이 하나의 유행으로 존재한다는 것. 특히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탁구가 강세였다. 당시 한국기원 근처 탁구장에 가 보면 늘 프로기사들이 있었다. 이창호 9단 역시 대국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라켓을 챙겨와 탁구를 치곤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테니스 열풍이 불었다. 프로기사 중 가장 오랜 구력을 자랑하는 윤기현 9단을 비롯해 김승준, 이창호 등 젊은 기사들이 너도 나도 라켓을 손에 들었다.

2, 3년 전 테니스 바람이 수그러들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퍼

오른 것은 야구. 몇몇 기사들이 모여 시작한 야구는 아예 팀으로 확대돼 프로기사들이 MBC ESPN의 연예인리그에 출전할 정도로 그럴 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최철한, 백승석, 원성진, 김승준, 김영삼, 윤현석 등 스타플레이어들이 골러브를 끼고 바둑판이 아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프로기사들의 형편(?)이 나이지면서 중장년 기사들에게는 골프가 인기다. 서봉수 9단, 권갑용 7단, 양재호 9단 등이 잘 알려진 골프파들.

프로기사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선호되고 있는 운동은 뽀뽀 뽀뽀 해도 등산이다. 가족이 모두 등산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조훈현 9단은 아예 북한산 자락인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산에 오르고 있다. 종종 대국장에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곤 하는 부산의 김준영 4단은 아예 프로급의 등산가로 알려져 있다.

남편이 살아 있던 선배들의 시대와 달리 요즘 젊은 프로 기사들에게는 ‘몸이 곧 돈’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술자리 풍토도 많이 달라져 두주불사형의 술고래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흡연자들은 아예 손을 꼽을 정도이다. 건강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이다. 19로 바둑판에 인생을 건 승부사들, 그들의 승부는 반의에서도 이처럼 치열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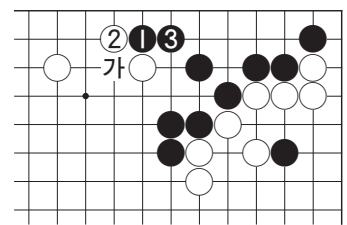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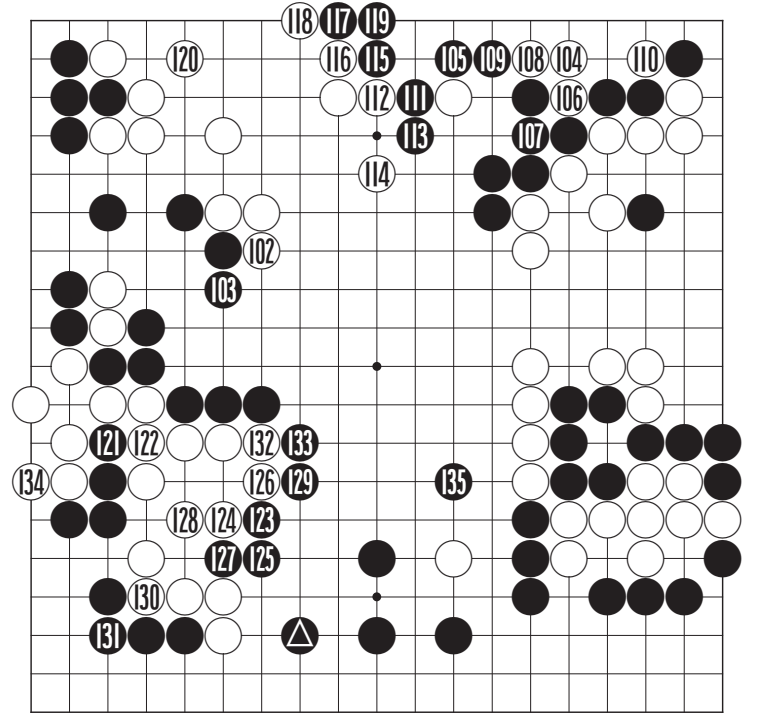
프로 기사들은 두뇌혹사와 운동부족에 시달리는 심신을 각종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통해 충전한다. 프로기사 야구단 ‘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철한(왼쪽)과 조훈현. (한국기원제공)

제16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배우대회

한타임 늦은 반발  
6보(102~135)

白 이한재 4단  
(조선대)

黑 이민재 4단  
(광주시청 A)



<참고도>

우변 전투에서 대패를 맞은 이민재 4단은 흑 ▲로 달려가 인근히 좌변의 백 대마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한재 4단은 이 대마는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번에는 102를 선수하고 104로 반상최대의 곳을 치중해 기세를 한껏 올리고 있다. 이것이 흑으로서의 매우 이었다. 사실 흑 ▲로는 방정하게 ‘참고도’의 흑 1로 상변에 달려가는 것이 가장 컸다. 백이 2로 받지않고 3에 찢히는 것은 흑이 ‘가’로 저허 반발한다.

이민재 4단은 106에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보고 뒤늦게 105로 불여 반발했으나 한타임이 늦었다.

이한재 4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110까지 우상귀를 접수해 버리니 이제 실리로는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게 되고 말았다.

이민재 4단은 아까부터 노려오고 있던 좌변 백 대마를 흑 120으로 덮쳐준다. 백 124 이하 134까지 근근히 살아간 것은 상당히 골육을 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득으로는 역전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흑의 고민이다.

이제 중앙에서 얼마만큼 집을 만든느냐가 관건인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조훈현, 마지막 불씨 살렸다

지지옥션배, 시니어팀 추풍낙엽속  
김은선 3단 꺾고 반격 교두보 마련



조훈현 9단이 시니어팀의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렸다.

조 9단은 지난달 29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지옥션배 연승대회전 16국에서 김은선 3단의 5연승을 저지하고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종일관 실리로 앞서나갔던 조훈현 9단은 조금의 반쯤도 보이지 않고 완승을 이끌어 시니어의 체면을 살렸다. 김 3단은 시종일관 침착하게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을 느끼고 237수 만에 돌을 거두었다. 조 9단은 오는 7일 이민진 5단과 격돌한다.

조 9단이 승리했지만 시니어팀에게 앞으로 남은 대국은 참살산중이다. 조 9단이 시니어팀에 승리를 안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여류기사 7명을 꺾어야 한다. 시니어팀의 기사 12명 중 11명이 이미 낙오했다.

조 9단은 김은선의 4연승을 저지했지만 타이 나이에, 조혜연, 박지은 등 더 큰 고비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LG배 이번엔 꼭 한국 품으로”

### 4대천왕 등 15명 출전...4일부터 32강전

제12회 LG배 세계 기왕전 32강전이 4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관련 포인트는 한국의 부활 여부. 지난 2004년 9회 대회 이후 지난 3월 막을 내린 11회 대회까지 3년간 결승전은 모두 외국 기사들의 승부로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에 출전하는 15명 정예멤버들은 팬들의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이 대회 최다 우승(4회)에 빛나는 이창호를 필두로 이세돌 최철한 박영준 등 소위 ‘4대천왕’이 출전한다.

### 이세돌-뤼시허 9월 중서 맞대결

오는 9월9일 이세돌 9단과 뫼시허 9단이 중국 남방항공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을 초청해 대국을 벌인 남방

국수 타이틀을 따낸 윤준상, 목진석, 신예군의 선봉인 강동윤 이영구 등도 출격한다. 54세의 최고참 조훈현과 초단 돌풍의 주역 한상훈(19)도 감투를 입는다.

중국은 세계 2관왕에 올라선 구리와 창하오를 상포를 비롯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년도 준우승자인 후야오위, 자국 랭킹 2위 쑹제, 신예군을 대표하는 셰허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대회 우승자인 장쉬와 현 자국 1위 야마시타 등 5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

장삼배는 특히 실제 무동(武童)들이 바둑돌 역할을 맡아 대형 지상 바둑판 위에 기보를 재연하는 ‘무림대결’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03년 첫 대회에서는 조훈현 9단이 참하오 9단에게 승리했고, 2005년에는 이창호 9단이 역시 참하오 9단과 대결해 무승부의 화국을 연출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1101-602-2532  
(광주은행 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대)383-5221, 110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건물투자**

**● 땅투자 (상무지구)**

**● 모텔매매**

**● 공장, 창고 및 기타**

**● 임야(농장)**

**● 주유소 부지**

**★양도세 부동산 교환할임영★**

**정우부동산**  
☎(대)675-4788-7, 1101-603-4788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건물금매**

**토지매매**

**● 임야(농장)**

**● 주유소 부지**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 임야매매**

**첨단월세공인중개사**  
☎(대)972-4585, 110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시가리)

**★급매매★**

**●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  
대주택, 물류창고, 복식  
실버시설**

**●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  
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첨단중심 상업매매**

**● 첨단 인근 복지 급매매**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다목적 무등도서관시가리 뽕밭문턱 2층)

**건물**

**● 정비 공점부지 600평**

**● 임대주택지 1,000평**

**● 임야**

**● 주유소 전문중개**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1101-602-9937  
(광주 첨단지구, 국민은행건물 2층)

**상업용건물**

**● 임야**

**● 주유소 전문중개**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1101-602-9937  
(광주 첨단지구, 국민은행건물 2층)

**상업용건물**

**● 임야**

**● 주유소 전문중개**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 임야매매**

**● 주유소 부지**

**존경하는 동료·선배배 중개사님들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  
최고의 A급 상가를 찾고 계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중개사들의 협력은 성공의 필수요소이고, 우리의 성공은 모두 귀하같은  
중개사님들 덕분입니다. 아래의 물건은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의한 법령 제23조에 의거한 전속중개계약물건입니다.  
물건을 소개해주시는 즉시 최정원 양도소득에서 받게될 수수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대후론 70평 노래방(도우미 없는 청정지역)**

**노래방 요약 손익계산서(최근 3개월)**

**전대후론 대로변 바로 건너편 1층 50평(대지176평)**

**부동산 전문인력입니다. 내외국인에게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락주시요.**

**800평 x 500만원 건축하실분**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양산동 상업용지**

**양산동 상업용지**